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5 Number 1 **1** 2017



시간, 공간, 물질, 법칙 그리고 **목적**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첫 장이다. 여기에는 시간, 공간, 물질, 우주, 식물, 별, 동물, 사람에 대한 기원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에는 그분의 전지함, 전능함, 생명 되심, 선하심, 모든 것을 초월하심 등 그의 능력과 성품이 그대로 들어있다. 그 첫 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한다. 이 첫 말씀이 말하듯이 시간(태초)—공간(하늘)—물질(지구)을 동시에 창조하신 것이다. 이는 과학자들이 접근을 해도 완벽한 문장이 아닐 수 없다. 시공간과 물질은 분리될 수도 없지만, 분리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문장 안에는 단지 시공간 속의 물질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자연 법칙을 동시에 넣으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법칙과 시공간 물질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서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물질이라는 구조적 상태는 법칙이 없다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며, 한편 물질 없이 법칙이란 것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시공간 물질 세계에 자연 법칙을 함께 넣어 놓으신 것을 보충해서 설명해주시는 듯하다.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욥 38:33)

이는 그 앞 절에서 묘성, 삼성, 별자리, 북두성 등을 언급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들면서 동시에 하늘에 그 궤도를 정하셨다는 것이다. 또한 그 법칙에 따라 별들이 운행하며, 그리고 지구(땅, earth)

와 서로 영향 하에 존재하도록 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들을 보더라도 이들은 서로 간에 완벽한 거리와 크기를 보여준다. 모든 것이 조정된 규칙 가운데 운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리므로 이들은 완벽한 주기를 이룬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각 행성과 위성의 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그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제자리에 온다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별, 행성, 위성 등의 물질과 동시에 그들의 법칙과 규칙을 창조하신 것이다.

지구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들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Who marked off its dimensions? NIV;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우리말성경) 네가 아느냐?”(욥 38:4, 5)

질량에 따라 물질의 중력이 좌우된다. 지구도 마찬가지다. 지구의 질량이 지금보다 크면 중력이 너무 세서 살기 어려울 것이며, 적으면 중력이 너무 약해서 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창조자가 이런 질서를 갖춘 피조물을 고려한다면 그분은 중력이라는 법칙 가운데 지구가 얼마나 커야 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 크기를 본인이 직

접 결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타당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아래 흠뎁이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흠뎁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욥 38:38)

흠뎁이가 붙는 것은 중력 때문이다. 중력이 없이는 티끌들이 뭉쳐 거대한 덩어리를 이룰 수 없다. 또한 강력, 약력, 전자기력과 같은 기본 힘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티끌을 포함한 모든 물질이 자신의 모양을 갖추고 서로 간의 물리적 관계를 유지하며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욥에게 던진 질문은 간단한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물질과 법칙을 모두 알고 계신 분만이 가능한 질문이다.

분명한 것은 시간, 공간, 물질이 동시에 창조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법칙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코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어떤 지적이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는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단지 법칙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만들면서 그 목적도 말씀하신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서 별들을 만드실 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창 1:14). 별들을 만드시며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자신이 만드신 시간의 주기를 이루는 것이 그 목적임을 말씀하신다.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창 1: 29,30) 식물들은 사람과 동물의 먹거리가 목적이었다.

이샤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가 땅을 지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사 45:18). 즉 지구의 창조 목적은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완벽한 조건의 지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어려움 없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공간, 물질, 법칙... 거기에 그 만든 목적까지 첨가시키셨으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믿을 수 있는 열 가지 이유



전 세계를 파괴시킨 홍수 심 판은 지구상에 큰 흔적을 남겨 놓았다. 앞으로 짚막하게 다룰 그랜드 캐니언의 열 가지 독특한 특징은 가장 하부 퇴적 지층인 태핏 사암부터 가장 상부의 카이밥(Kaibab) 석회암까지 4,000피트에 이르는 두께의 지층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다. 이 열 가지가 하나 하나로 볼 때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모두 모으면 전체가 작품처럼 다가온다. 그랜드 캐니언은...

1.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기록이다

그랜드 캐니언의 화석들 대부분은 부서졌고 멀리서 운반된 조개들이 뒤죽박죽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생물체들이 제자리에서 군집을 이루며 살았다는 증거는 아주 빈약하다. 흔적 화석으로 보존된 동물 흔적이나 발자국 등은 어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살아있던 상황에서 매몰되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어떤 과정도 넓은 지역에서 이와 같은 동물 시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거에 오늘날과 아주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말인가?

2. 대륙 위에 대양이 있었다

대양 퇴적물로 구성된 사육 거대 지층(Sauk mega sequence)은 그랜드 캐니언 기반암을 담요처럼 덮고 있다. 해양 화석 등 대양 지각과 관련된 퇴적 지층들이 대륙 지각을 덮은 것은 지금과 아주 다른 조건의 홍수가 아니라면 형성되기 어렵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사육 거대 지층은 오늘날이나 최근의 퇴적 기록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비교할 수 없이 전지구적인 사건을 필요로 한다.

3. 아주 광대하게 펼쳐진 퇴적 기록을 보여준다

태핏 사암과 레드월 석회암 같은 각각의 암체들은 수백 피트의 두께를 보여주며, 물 속에서 퇴적된 해양 화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수평으로 북미 대륙을 횡단하며 어떤 지층은 더 연장되며 이어진다. 실제로 이들은 구조, 성분, 화석 상에 그리 다양하지 않다.(편집자주, 광범위한 규모에 비해 특성이 거의 비슷한 퇴적물로 이루어졌다는 뜻.) 이런 모습은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는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기에 충분히 가능한 격변적 사건을 요구한다.

4. 격변적 퇴적 기록이다

그랜드 캐니언의 화석, 지층, 퇴적암들은 빠른 매몰을 말하고 있다. 분명히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화석을 보존시킬 만한 오늘날과 전혀 다른 빠른 매몰을 암시한다. 물 속에서 형성 가능한 사층리는 모래가 빠르게 퇴적되었음을 내포한다. 조용한듯이 보이는 레드월 석회암조차도 광활한 지역에 걸쳐서 모래와 암편에 매몰된 수십억 구의 앵무조개(nautiloids)를 갖고 있다. 이들은 그랜드 캐니언 지층이 “천천히 단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기원을 받아들이기 힘든 증거이다.

5. 전지구적 단일 침식의 기록이다

태핏 사암의 모든 바닥은 평행하지 않은 침식면을 보여준다. 이는 해양 퇴적물들이 전지구적인 규모로 대륙의 상부를 덮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겉으로 보자면 표면의 특성은 쓰나미와 같은 강도의 무언가가 지표를 할퀴었으며, 이어서 해양 기원의 태핏 사암 퇴적물이 그 지표 위를 덮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먼 거리에서 운반된 퇴적 기록이다

그랜드 캐니언 상부 2,000피트 지층을 구성하는 모래들은 미 동부인 아팔라치안 지역에서부터 온 것들이다. 이는 수만 입방 마일의 모래가 대륙을 횡단하며 운반되었음을 말한다. 이는 오늘날 결코 전례 없던 아주 특별한 상황을 말한다.

7. 시간을 말하지 않는다

그랜드 캐니언의 여러 암석들에게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 방법이 수행되어왔다. 이 암석들은 방법을 달리 측정했을 때 서로 일치하지 않는 연대를 보여주었다. 만약 측정 방법을 달리할 때마다 다른 연대를 보여준다면, 그 연대는 참으로 회의적이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그랜드 캐니언 암석의 나이가 성공적으로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

8. 잔혹한 퇴적 작용의 기록이다

그랜드 캐니언의 4,000 피트 두께의 고생대 퇴적 단면은 오랜 동안 퇴적 작용이 멈추었다는 부정합을 보이지 않는다. 지질학자들은 진화론적으로 수백만 년 이상 오랫동안 퇴적 작용이 없었다는 부정합이 있었다고 단언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270마일도 펼쳐진 평평한 면을 유지하겠는가? 왜 그렇게 기복 없이 평평할까? 이는 각각의 지층들이 연속적으로 퇴적되었으며 큰 방해없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9. 단번의 퇴적 기록이다.

진화론자들은 고생대 캄브리아기 태핏 사암 지층은 퇴적 작용을 마치고 4억 년이 지난 후에 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랜드 캐니언의 4,000피트 두께의 퇴적 작용이 완결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굳지 않고 있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최하층의 태핏 사암이 4억년동안 굳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 이는 반대로 전 지층이 단 한 번의 전지구를 덮었던 홍수로 형성되었음을 말한다.

10. 전지구적 홍수에 대한 기록들.

거의 예외 없이 북미 인디언 부족들은 그들의 문화 전통 가운데 홍수에 대한 흔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홍수에 대한 전설이 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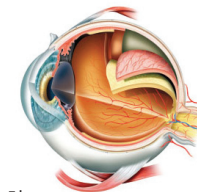


Bill Hoesch
M.A. Geology

- The case for subaqueous vertebrate "escape tracks" in the Coconino Sandstone remains formidable: L.R. Brand & T. Tang, "Fossil vertebrate footprints in the Coconino Sandstone (Permian) of northern Arizona: evidence for underwater origin" (Geology 19:1201-1204, 1991).
- The Sauk mega-sequence is the first of three major pulses of sediment represented in these Grand Canyon strata. L.L. Sloss, "Sequences in the cratonic interior of North America" (Geol Soc. America Bull., v. 74, p. 93-114, 1963).
- Average density of oceanic crust is 3.0 g/cc; continental crust is much less: 2.85 g/cc.
- D.V. Ager, The Nature of the Stratigraphical Record (John Wiley, New York), 1973.
- A geologic catastrophe is defined as an event of high energy and short duration.
- Crinoid fossils in the Redwall Limestone include some "exceptionally well-preserved external molds of calyces," which demand extremely rapid burial. History of the Redwall Limestone in Northern Arizona, E.D. McKee and R.G. Gutschick (Geol. Soc. Am. Memoir 114, Boulder, Colorado, 1969, p. 49) and "Echinoderm taphonomy, taphofacies, and lagerstätten," C.E. Brett, et al. (Paleontological Society Papers, 3: 147-190, 1997).
- Large scale cross-bedding of sand-to-pebble-sized bioclastic debris is found in two of the four Redwall Limestone members. Strong underwater currents are implied, yet these bear striking resemblance to cross-beds in other Grand Canyon strata that are claimed to be of terrestrial origin: McKee & Gutschick, History of the Redwall Limestone (p. 111), and G.H. Billingsley, Geologic Map of the Grand Canyon 30' x 60' Quadrangle, Coconino and Mohave Counties, Northwestern Arizona, (U.S. Geological Survey I-2688, Reston, VA).
- S.A. Austin and K.P. Wise, "Regionally extensive mass kill of large orthocone nautiloids, Redwall Limestone (Lower Mississippian), Grand Canyon National Park, Arizona"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2002 Annual Meeting, Paper no. 187-4.), and S.A. Austin, "Nautiloid Mass Kill and Burial Event, Redwall Limestone (Lower Mississippian), Grand Canyon Region, Arizona and Nevada" in R.L. Ivey (ed.) Proceedings of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ationism (Pittsburgh: Creation Science Fellowship, 2003), pp. 55-99.

- This is a kind of slowness that strains even uniformitarian models; after major unconformities are accounted for an average rate of sedimentation is estimated in the hundredths of a millimeter per year.
- The Great Unconformity is a worldwide erosion surface and in Grand Canyon it separates the Tapeats Sandstone (base of the Sauk mega-sequence) from the underlying Precambrian rocks.
- G.E. Gehrels, et al., "Detrital zircon U-Pb geochronology of Paleozoic strata in the Grand Canyon, Arizona
- (Lithosphere 3:183-200, 2011).
- A good skeptical review of radioisotope techniques including problems in dating Grand Canyon rocks is found in A.A. Snelling, Earth's Catastrophic Past, Volume 2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Dallas, p. 797-864).
- The maximum relief on any of these erosion surfaces is 400 feet. Compare this to 29,000 feet in today's world.
- Fractures, minor faults, and apparent flexural slip in these tight folds do not preclude a soft-strata origin. The Tapeats Sandstone has a quartzitic texture (in part) which withstands bending about as well as a ceramic pot endures a hammer blow; evidence for grain breakage ought to be everywhere. The existing brittle failure indicators have not been shown to be so volumetrically abundant as to account for the tight fold geometry, and may be incidental or even post-date (in part) the folding event. Flexural slippage, if confirmed, demands that folded units differ in shear strength, not that they be fully lithified. Ductile thickening by 25% of the Redwall Limestone is documented in other Grand Canyon folds, which implies flowage of material over hundreds of meters distance: "Development of monoclines: Part I. Structure of the Palisades Creek branch of the East Kaibab monocline, Grand Canyon, Arizona," Ze'ev Reches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Memoir 151, p. 235-270, 1977).
- A Hualapai flood-story depicts a world-destroying flood, 45 days of rain, a bird with grass in its mouth, and a dispersion of peoples following: Paul Talieje, "Wukahme," in Leanne Hinton and Lucille Watahomogie (eds) Spirit Mountain: An Anthology of Yuman Story and Song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cson, 1984, p. 15-42).

사람은 어떻게 볼 수 있나



광자(photon)가 화학적인 자극으로 변환되어 뇌에 전달되는 신호는 평소의 휴식 상태에서 초당 20-30회의 속도로 전달되지만 보이는 사물에 따라서는 초당 수백 회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초당 수백 회의 속도가 가능하다면, 야구 선수가 공을 보고 때릴 때까지 전달되는 신호는 그 수가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계를 통해 신경계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2010년에 뉴욕타임즈에서 눈 연구를 하는 생물물리학자의 발견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눈의 구성 요소는 실제로 완벽하다." (NATALIE ANGIER, "SEEING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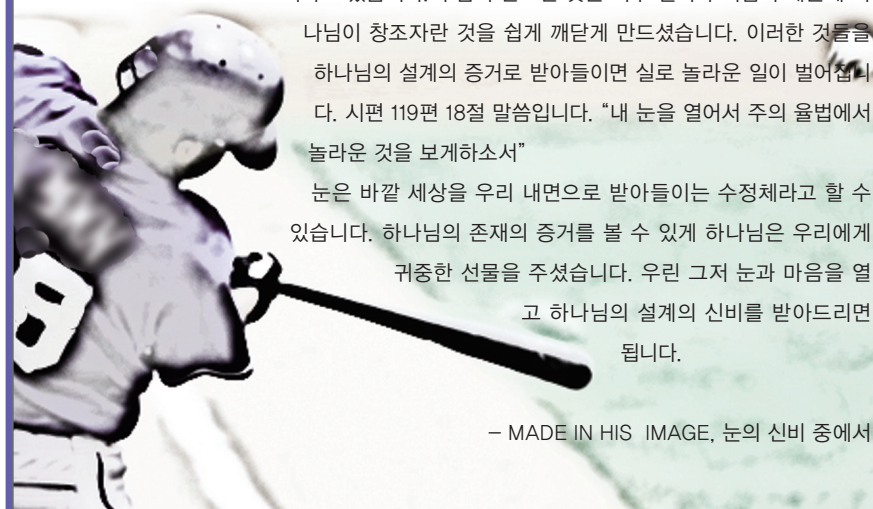
NATURAL WORLD WITH A PHYSICIST'S LENS," THE NEW YORK TIMES POSTED ON NYTIMES.COM, NOVEMBER 1, 2010) 눈의 광수용체가 작동하는 요소에 대해 나탈리는 우리의 눈이 현대 물리학의 법칙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보다 더 좋은 성능의 눈을 원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직관이나 경험을 통해 우리 인간이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설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것은 너무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

나님이 창조자란 것을 쉽게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설계의 증거로 받아들이면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하시어"

눈은 바깥 세상을 우리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수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린 그저 눈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설계의 신비를 받아드리면 됩니다.

— MADE IN HIS IMAGE, 눈의 신비 중에서





2017년 1월 뉴스

이재만 선교사는 지난 11월 한 달간 한국, 홍콩, 일본, 광을 순회하며 집회를 인도하고 귀국했습니다. 집회를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이 전해지고 또한 진화론과 이와 타협한 이론들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르는 교회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위해 기도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합동신학원(11월 7일)

합동신학원 '현장 신학 강좌'에서 세미나는 "하나님께서 진화를 허용하셨는가?"라는 주제로 90분씩 세 번에 걸쳐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각각의 주제는 1. 지질시대대표의 탄생, 2. 창세기 1장과 타협이론, 3. 진화의 반대는? 이었습니다.



1. '지질시대대표의 탄생'에서는 계몽주의 이래로 이성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과거를 알기 위한 역사 과학 분야에서도 성경을 배제하면서 동일과정설과 진화론이 등장한 배경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872년에 찰스 라이엘에 의해 지질시대대표가 탄생했으며 그 이래로 모든 학문에서 이 진화 역사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이루어졌음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와 교회에서 이 존재하지 않는 역사에 맞춰 성경을 변화시키는 타협 이론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2. '창세기 1장과 타협 이론'에서는 지질시대대표가 등장한 이래로 1800년도 말부터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타협이론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유

신론적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 날-시대 이론, 간격 이론, 구조 가설 등 과학적, 성경적 문제와 사회적 영향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3. '진화의 반대는?'에서는 교회에서 타협 이론들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신앙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 세대가 떠나고 사회가 더 타락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세미나 내내 진지했고 질문과 응답도 이어졌습니다. 세미나 주제에서 느낄 수 있듯이 최근 이슈가 되는 타협이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주로 현직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주제가 시기 상 위낙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학생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갖기로 했습니다. 합동신학원은 지난 6월 교수들이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였고, 올 해 6월부터는 매년 신학생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에 신학계에는 진화 역사를 사실로 전제하고 성경을 바꾸는 타협 이론들이 등장해왔습니다. 한국 역시 이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타협 이론에 대



하여 제대로 파악과 대처를 못한다면 한국 교회도 역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합동신학원에서 이루어진 세미나와 계획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 동안에 한동대학교도 매년 3월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들을 할애하여 12시간씩 창조과학 세미나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지난 2016년 12월호 뉴스 참고).

타협 이론이 대두되는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기회로 바뀌고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신학교와 교회에 이런 기회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창조과학탐사를 비롯하여 창조 사역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결과입니다. 한국교회와 창조과학사역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이재만 선교사는 한국 방문 동안에 햇불 트리니티 CEO 스쿨, 두란노서원, 익산예안교회 등에서도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홍콩-일본-괌 순회 세미나

한국 방문에 이어 아래 나라와 지역에서도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홍콩 중앙 교회(11월 11-13일)

지난 11월에 이어 홍콩 중앙 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동성애, UFO, 안식일의 주인 등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홍콩 중앙 교회는 올해에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기로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11월에 이어서 세미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본(11월 14-17일)

동경에서 한일 선교사 협의회에서 '일본 선교와 창조과학사역'이란 주제로 두 시간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진화론을 수용하고, 교회에서조차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른 1877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삽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선교사가 일본에 방문했지만 기독교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하신 선교사님들은 일본 사역에 진화론을 회피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Love Creation(회장 우사미 미노르)이 주관하는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일본인 대상이었는데, '기원에 관한 질문' 등 총 9개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어려운 일본 상황에서 창조과학 사역이 꾸준히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일본을 위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괌 온누리교회(11월 18-22일)

괌 온누리교회에서 '욥기와 창조과학' 등 4개의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괌 온누리교회에서도 올해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순회 세미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1기 중부 창조과학학교 수료

지난 9월 21일부터 10주 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제21기 중부 창조과학학교가 11월 30일에 종강하였습니다. 제21기는 순복음 시카고교회 (담임 김판호 목사)의 적극적인 주관으로 매 수요일 저녁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1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부 창조과학학교는 2017년 4월에 제22기 그리고 9월에 제23기를 주최해주시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또 직접 참여해 주시는 여러 동역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 이동용 박사 Creationbara@gmail.com)

제8기 창조사역집중훈련(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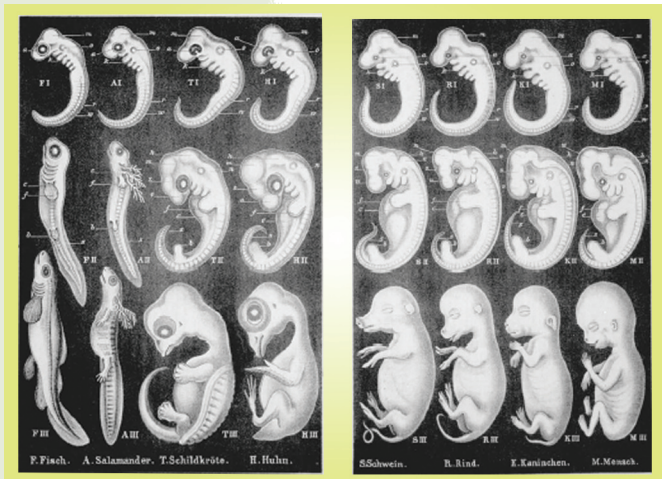
12월 22일부터 8주간 제8기 ITCM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생은 모두 10명이며, 여러 지원자들 중에 선발된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 시대의 마음을 덮고 있는 진화론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리우고 있음을 깨닫고 참된 성경적인 창조 신앙을 배우고 또 전하고자 온 젊은이들입니다. 앞으로 두 달동안 모든 훈련생들이 성경을 창조주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만나며,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는 훈련된 자들이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사역자들의 성령충만과 건강, 훈련생들의 하나됨과 집중력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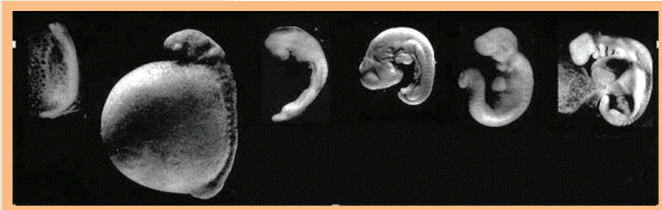


중부 창조과학학교





(그림 1)
헤켈의 척추동물의 배발생도-
왼쪽부터 물고기, 도롱뇽, 거북
이, 닭, 돼지, 소, 토끼, 사람.^[1]



(그림 2)
실제 배발생도-
왼쪽부터 순서대로 물고기,
도롱뇽, 거북이, 닭, 토끼, 사람.

형태적 유사성의 덫

발생학은 인류의 진화를 뒷받침할까? 독일의 진화론자 헤켈(Ernst Haeckel)은 현대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원숭이와 사람의 배발생이 유사하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그 후 척추동물의 배발생 비교 그림을 제시하여 배발생 과정에서 진화가 재현된다고 주장(1874)하였다. (그림1)에서 보듯 헤켈이 직접 그린 척추동물의 배발생 과정 첫 번째 단계는 모두 물고기의 것과 유사하게 그려졌다. 당시 이 그림은 꽤 설득력이 있었는데,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리고 사람의 발생 초기 단계가 매우 유사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의 배반복설에 의하면, 포유류의 배아 발생은 처음에 어른 물고기의 모습을 띠다가 다음은 양서류, 그 다음은 파충류의 어른 형태를 거쳐 결국에 포유류의 모습을 완성한다는 것이다.^[2]

그러나 오래지 않아 헤켈의 배발생도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각 동물의 발생 초기 단계가 물고기의 것과 유사하게 보이기 위해 배아 그림에 의도적으로 삭제와 삽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슷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지워버리고, 아가미 구멍과 꼬리는 부각시켰다. 크기도 약 1~10mm로 열 배 이상 달랐지만, 거의 같은 크기로 변경하였다. 후에 이러한 사실을 헤켈 자신도 인정하였으며 조작에 대해서도 고백하

였다. 비교발생학자이자 해부학자인 히스(His)를 비롯해 여러 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헤켈의 배반복설을 부정하였으며, 발생시 조상 중의 어른 모습을 거친다는 기본 전제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3] 실제로 최근 배발생에 대한 비교 연구는 (그림 2)에서 보듯 초기 단계에서조차 각 종류들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켈의 배반복설은 진화의 발생학적 증거로서 매우 오랜 시간동안 교과서와 각종 문헌을 통해 가르쳐졌다. 과학 교과서에는 마치 사람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을 거쳐 진화된 것이 사실인 양 서술되었고, 배발생 과정이 그것을 뒷받침한다고 제시되어 왔다. 생물학계 최고의 조작 학설이 왜 그렇게 각광받는 진화의 증거로 굳어진 것일까? 이에 대해 하버드대학 고생물학자였던 굴드의 지적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4]

비교 대상이 골격 구조이든, 두개골의 모양이든, 치아의 배열이든, 지금 다루듯 배발생의 모습이든…… 그들은 모두 형태적 유사성이라는 덫에 걸렸다. 찰스 다윈이 공통 조상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래로,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되어 모든 생물과 인간이 출현했다는 신념은 해부학, 인류학, 발생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공통조상을 전제한 형태적 유사성을 찾게 했던 것이다. 불행히도, 지난 150년 가까이 이런 형태적 유사성이란 상상의 산물과 자의적 해석들이 진화의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사람이 물고기와 조상이 같으니까 닮은 점이 있을 것이라는 너무나 그럴듯한 추론은 잘못된 전제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더이상 ‘공통조상’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다.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 안에 속한 수십만의 어떤 생물도 현재 비슷한 다른 종류로 변해가고 있지 않다. 과거에도 종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각 생물은 자신만의 발생 과정을 거쳐 독특한 형태와 기능을 갖고 태어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것이지, 진화적 조상의 형태를 반복하다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동물들이 완벽한 이유는 고유한 유전정보가 완전한 형태와 완전한 기능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형태적 유사성은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다.

각 생물은 조상에게 받은대로 그 유전정보를 다시 자손에게 물려준다. 이 모든 과학적 사실은 처음부터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성경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성령이 가르치듯 그 어떠한 동물과도 조상을 공유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눅3:38)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잘못된 지식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노휘성
과학교사

[1] 'Pictures of Evolution and Charges of Fraud: Ernst Haeckel's Embryological Illustrations', Isis 97 (2006): 260-301

[2], [3] 김기환, 생물의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한국진화론실상연구회, 2008, pp.144-149

[4] Gould, S.J. Natural History, 3 (2000): 42-49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랜드 캐년’을 꼭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있길 기다렸는데 ‘두란노 창조과학탐사’ 광고를 보고 기왕이면 믿는 자로서 이 탐사여행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오게 됐다. 그 결과는 정말 기대이상이었다! 아직 많이 깨닫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누구에게나 천지창조와 노아의 홍수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황인경권사 <온누리교회>

살육에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유일한 주인, 늘 곁에 계시던 하나님 이렇게 완전한 창조주셨구나 다시한번 느낍니다.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살고 기도하고 싶어지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 김현숙 <청주성교회>

창조과학, 특히 젊은 지구론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더 확고한 확신이 필요했었습니다. 창탐 여행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한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 송미영 <연희 침례교회>



16년 동안 배워왔던 교육과정이 단 7일만에 무너지는 시간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대... 성경에서 이런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하고 막연히 듣기만 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과학 탐사를 통해 성경에 쓰여진 말들이 진짜로 일어났었구나 하고 실감하고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부한 지질학 친구들에게도 얘기해 주어야 겠습니다. - 심하은 <인지성결교회>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풀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였습니다. 제 주위 친구들이 많이 타락해 있는데 저도 그랬었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 장영 <온누리교회>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도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행하신 증거를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었고, 성경을 믿을 수 없어 막연하게만 느껴진 하나님이 한결 더 가까히 느껴집니다. - 현신혜 <온누리교회>

2017 ACT Schedule

12/22-2/18	제 8 기 ITCM
1/2-5	창조과학탐사 (18차유학생창조과학탐사), 이재만
2/20-26	창조과학탐사 (인천동춘교회), 이재만
3/30-4/7	창조과학탐사 (연합팀), 이재만
4/16-22	창조과학탐사 (높은뜻푸른교회), 이재만
4/23-27	창조과학탐사 (하늘샘교회), 이재만
5/1-7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1), 이재만
5/9-16	창조과학탐사 (서초충신교회), 이재만
5/18-24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28-6/1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6/4-9	창조과학탐사 (대전온누리교회), 이재만
6/12-20	창조과학탐사 (기쁨의동산교회), 이재만
6/21-25	창조과학탐사 (합동신학원), 이재만
6/26-28	창조과학탐사 (미주한인예장 남가주노회 EM), 김선옥
7/3-12	창조과학탐사(과천약수교회), 이재만
7/13-19	창조과학탐사(한동대학교수),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